(시편 42:1~11)

1.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계영배 효과와 마음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계영배 효과와 마음의 목마름'

조선 후기에 임상옥이라는 거상(巨商)이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상업 수완으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거부가 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재산에 대해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상옥은 자기가 앉는 자리에는 항상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을 두고 인간의 과욕을 늘 경계하면서 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계영배(戒盈杯)는 경계할 계(戒), 찰 영(盈), 잔 배(杯)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술잔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술잔처럼 생겼는데 중앙에 원기둥이 서 있고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원기둥의 높이는 술잔 높이의 7부 정도에 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술잔은 밑바닥에 구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의 높이만큼만 술을 따르면 술이 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술을 따르면 밑바닥 구멍으로 술이 모조리 새나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높은 곳에 있는 물을 아래로 끌어들일 때에, 긴 호스를 입으로 쭉 빨아들이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계영배도 7부 이상의 술을 따르게 되면 다 밑바닥 구멍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지나치면 오히려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을 연상시킵니다.

인간의 마음도 담고 채운다는 면에서는 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도 계영배 술잔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넘치면 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마음은 항상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영배는 7부 이상의 술을 따를 때에 비워지지만, 마음의 잔은 넘치도록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비워집니다.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없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왜 계영배처럼 비워지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의 마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로 접하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크기의 마음은 한없이 수축됩니다.
예를 들어 15평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한 부부가 5년 뒤에는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 크기의 마음은 아파트만큼 오그라들어서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돈을 모아서 결국 아파트를 사게 되면 마음에는 만족감이 생기면서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크기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크기로 돌아온 마음은 아파트가 줄 수 있는 만족감으로는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언론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에서 만족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다면 정치와 결탁할 필요가 없고,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승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천억이 있다면 그 돈에 깔려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산을 몇 조씩 가지고 있는 그들이 수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을 보면 만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계영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구의 지하자원을 다 팔아서 혼자 갖는다 하여도 하나님 크기에 비교한다면 티끌보다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족하려는 순간 하나님 사이즈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만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계영배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에서처럼 채워질 때에 비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잔은 가득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계영배 효과가 나타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비워집니다.
마음에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목말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 세상 어떤 것에 목말라하고 성취하더라도 계영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단 이루고 싶을 때에는 마음이 수축해서 오므라들지만 그것이 채워져서 만족하려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마음은 본래의 하나님 크기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얻은 것들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 중의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지파에 속하여 성전 문지기를 하거나 제사 때에 성가대로 봉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의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역만리 머나먼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텃새도 심했을 것이고 생활도 넉넉지 않았으리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거기에 더해서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살았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들은 다름 아닌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이렇게 타지에 와서 고생할 이유가 있느냐고 여호와 신앙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늘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과 압제를 당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민들과 함께 제사지내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급함'은 히브리어로 '아라그'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요엘서 1장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라는 말씀에서처럼 극심한 가뭄에 들짐승들이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를 찾지 못해 헐떡거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갈급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죽느냐 사느냐라는 기로에서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한 급박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부분을 "울부짖으며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을 때에 그 속에는 물이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떠오를 것이고 몸은 생각을 따라 물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생각속의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마음에서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을 채우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신앙인들의 생각과 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다른 대상에 대해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돈이나 건강에 목 말라하면서 생각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에는 옳은 목마름이 있고 그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실제로 마음의 갈증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면서도 이 세상의 형통과 건강과 재물에 갈급해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생각속의 하나님을 마음에 충만히 모시지 못했으므로 탄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말로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

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전혀 하나님을 고려치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당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하나님 가뭄은 더욱 더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하며 예전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변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셈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회사원으로 일하다보면 주변 사람들은 다 승진에 목말랐고 월급이 오르는 것에 목이 말랐습니다. 성과와 사장의 칭찬에 목말랐지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살다보니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충만함이 넘쳐흐르면서 내게도 임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5절과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나'라는 의식이 있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가치에 목말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 살다보니 내게도 낙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깁니다. 그 낙심과 불안을 들여다보자 자신도 주변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가치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돈 건강 인정받음 승진 학벌 등의 것들에 목이 말랐던 자신에게 깜짝 놀라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고합니다.

소망은 곧 어떤 대상에 대해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누구나 세상의 가치에 대해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들 중에 살더라도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 없다는 위기를 느낄 때에 불안해합니다. 채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일했지만 결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늘 하루 장사가 안 됐다고 낙심하고, 몸에 좀 이상이 있다고 해서 불안해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목마름의 대상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목마름은 돈이나 건강이어서는 안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이 여호와에 대한 갈급함을 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

마음의 갈증은 다른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도 내 마음의 목마름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사건으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을 하늘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는 말에서 '나'라는 의식을 가진 마음이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돈에 목마른 자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죄 사함의 상징으로만 국한시키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표출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로서 세상을 향한 돈의 목마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불러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이 세상 것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동화되어 가는 자신을 꾸짖습니다. 돈에 대한 갈증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보면 자연히 나도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히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노골적이지 않았던 내 마음도 어느 틈엔가 세상의 가치에 대해 갈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를 시인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또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됩니다. 이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 자기 계발서"등이 복음일 수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투자 자문을 해주는 상담원들이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목말라하는 것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자들을 앉혀놓고 왜곡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된 끝에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세우시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목마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무엇을 목말라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하면 주님은 길이 되어주십니다.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므로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 죽음이 왜 세상에 대한 죽음이어야 했는지를 그 대답을 43편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의 잔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영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 불만과 불안이 생겨납니다. 계영배는 넘치려 할 때에 비워지지만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마음의 잔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에 비워집니다. 무엇을 성취하더라도 하나님 크기에 맞출 수는 없기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낙심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목말라해야 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돈 때문에 불안해서는 안 됨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음을 불안해하여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따라 하나님으로 마음 채우기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에서 일어난 계영배 효과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갈증을 채우느냐에 앞서 내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를 점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건이 오늘도 내게 살아있는 복음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